

## 김병준(전 청와대 정책실장) 13차 구술

1. 구술자: 김병준
2. 면담자: 김상철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2년 7월 23일
5. 구술장소: 서울 영등포구 공공경영연구원
6. 구술분량: 05분 13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퇴임 후 진보에 대한 고민과 모색

구술자 : 예. 하여튼 뭔가 자꾸 집필해서 남기고 싶어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계속, 지속적인 고민들을 좀 던지고 싶어 하셨죠. 당신께서 집필을 좀 하셨으면 했고 또 많은 학자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는. 그게,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민주주의 이쯤영(2.0)’<sup>1)</sup> 이런 거지. 또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이 진보적 사상을 어떻게 정립해나가고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도대체 뭐냐, 늘 물으셨지. “진보의 가치는 뭡니까?” 묻고, 묻고 또 묻고 하신단 말이야, 사람들 만나면. 정말 진보의 가치는 뭐냐. 나 같은 경우는 “상생과 인권, 상생, 평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수의 가치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참 답답해지거든. 그럼 보수는 인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상생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수는 평화도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런 논쟁들을 굉장히 즐겨하시고 그랬었죠.

면담자 : 왜 그렇게 천착하셨을까요? 진보, 보수 이런

구술자 : 너무 답답한 거야, 우리 사회가. 대통령께선 늘 말하자면 이 세상을 좀, 정말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숨 쉬고 사람대접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그런 세상을 좀 만들고 싶은데 대통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 부분에 관한 성취가 너무 없다고 생각하신 거야. 그러니까 실패하셨다고 자꾸 그러는 게, 정치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정치를 하셨고 또 매개변수를 하자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서 그런 질서를 좀 바꾸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되었으니까. 거기서 포기

1) ‘시민주권시대, 성숙한 민주주의를 열어가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토론광장’을 표방한 사이트. 퇴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기획했고 퇴임 후인 2008년 9월 18일 오픈했다.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결국은 뭔가 하든 우리 사회의 담론의 수준을 높여야만 결국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라고 보셨던 말이야. 정치가, 정치로 그 담론의 수준을 높이고 이렇게 좀 해볼려고 했는데 정치로 해보니까 한계가 있더라. 오히려 정치권 밖에서 (정치권을) 벗어났으니까 이제부터 더 말하자면 새로운 관점에서, 또 새로운 매카니즘 (mechanism)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답답하신 거야.

여전히 사람들은 파출소서 전화 오면 가슴이 덜컥하고 검찰에서 전화 왔다 하면 겁부터 먹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겁먹고 또 어떻게 보면 착취당하고 어떻게 보면 뜯기고 말이야. 그런 것들이지. 사람이 그렇게 권력에 의해서 놀리고 하는 이런 거. 권력이라는 게 힘이지, 힘. 힘에 의해서 놀리는데 경제적인 힘, 정치적인 힘 또 어떤 문화적인 힘. 그 힘에 의해서 놀리는 거 자체를 굉장히 거부를 하셨던 말이야. 그러니까 지배관계, 지배복종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힘에 놀린다는 사실이, 이 사실이 굉장히 못마땅하신 거야. 사람이 물론 안 그럴 순 없지만 하여튼 그 관계를 최소화,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고 보는데 우리 사회는 그게 너무 심하다고, 여전히. 여전히 심하고 돈에 놀리고 정치적인 힘에 놀리고 행정권에 놀리고 또 문화적인 힘에 놀리고 이런 부분들을 못마땅해 하고 특히 본인이 모르고 받아들이는 건 또 모르겠는데 본인이 알면서 이렇게 억압받는 걸, 알면서 놀리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특이한 지도자죠. 특이한 지도자고, 생각이 굉장히 깊은 지도자라고 봐야지. 어쨌든 그런 힘에 지배받고 복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셨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일종의 계몽적 사고를 가지고 계셨거든. 계몽적 사고를 가지고 계셨어. 그 계몽적 사고를 가지고 계시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을 깨어있게 해야 된다, 깨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 회의도 여전히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아는 만큼 그런 지배에 대해서, 지배를, (지배)구도를 갖다 부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어떡하든지 책도 쓰고 담론도 만들고 ‘민주주의 이펙팅(2.0)’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실천하려 했던 겁니다).

## ■ 구술자 주요이력

1954. 경북 고령 출생

1972. 대구상업고등학교 졸업

1976. 영남대학교 정치학 학사

1979.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정치학 석사

1984. 미국 델라웨어대학교대학원 정치학 박사

1986. - 2004.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1995.01 - 2000.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1995.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소장

1995.09 - 1998.08 미국 델라웨어대 도시행정대학원 외래연구교수

1996. 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 소장

1998. 자치경영연구원 원장

1999.08 - 2002.04 자치경영연구원 이사장

1999.08 - 2000.07 일본 국제교류기금 펠로우(게이오대 교환교수)

2002.09 국민대 행정대학원 원장

2002.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책자문단 단장

2002.12 - 2003.02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원회 간사

2003.04 - 2004.06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

2004.06 - 2006.05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장관급)

2006.07 - 2006.08 제7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

2006.10 - 2008.02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장관급)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2012년 현재)

2008.02 - 사단법인 공공경영연구원 이사장(2012년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1993년 9월 문을 연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주최 행사에 참여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이후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소장, 자치경영연구원 원장과 이사장 등을 맡으며 활동을 함께했다. 2002년 대선 때 정책자문단을 이끌었다.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 간사를 거쳐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청와대 정책실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 정책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자서전 <운명이다>는 “김병준 교수는 내가 정치를

하는 동안 꾸준히 정책 자문을 해준 유일한 대학교수였다(130쪽)” 고 기록하고 있다.